

[여호수아 성경학교]

전문인 선교사의 자질과 훈련 및 준비

조용백 목사(KAT 상임총무) / 2001 / 페이지수: 2

전문인선교 사역이란 직업·전공·달란트를 가지고 장, 단기적으로 교회 개척을 위한 직, 간접적 사역을 타문화권에서 하는 일련의 선교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문인 선교사로서 어떠한 자질이 필요하며 또한 전문인 선교 사역자로서 받아야 할 훈련과 준비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1. 전문인 선교사로서의 자질

1) 하나님 나라 건설에 헌신되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내가 좋아하던 것들-를 포기하고 주께 순종하면 더 많은 축복을 주신다. 사역자로서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권리들을 포기할 줄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사용하신다.

2) 선교에 대한 이해와 헌신이 있어야 한다.

선교에 대한 이해와 헌신은 국내에서도 계속적인 학습과 단기선교의 기회를 많이 가짐으로써 얻을 수 있다.

3) 건강한 영성(Spirituality)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건강한 영성을 지속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4) 관계(Relationship)를 잘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5)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전문성이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고여야 한다는 1등주의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의로 빠져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 성경적인 전문성의 개념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전문인 선교사는 영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춰야 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며 QT와 기도 생활이 끊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전문인 선교 사역자로서의 훈련 및 준비

1) 사역자(Minister)로 서기까지 최소한의 훈련 단계

① 기초 영성 과정(하나님, 나 자신, 이웃, 세상, 사탄)

기초 영성 과정으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묵상, 예배의 이해, 하나님 음성듣기, 순종, 내적 갈망-와 성령 사역의 이해, 내적치유, 상담, 신분(Identity)과 사명(Vision or Mission)을 세우는 단계, 또한 중보기도와 영적전쟁,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써 자신의 인격이 그리스도안에서 더욱 성장하는 단계와 관계훈련, 은사 및 직임 이해, 팀 사역과 리더쉽을 배우는 단계가 있다.

② 기초 신학 과정

기초 신학 과정은 전도 및 제자양육, 성경연구 및 인도, 기초 조직신학 및 교회역사, 기초 선교학-선교신학, 선교역사, 선교와 문화, 선교전략-과 타문화 적응훈련이 있다. 1년 이상 장기로 선교를 나갈 경우 타문화 적응훈련은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이다.

③ 전문인 선교 사역 과정

9가지의 문화 영역별(직업, 달란트) 전문훈련 과정(실천적, 이론적 사역 방법)이 있다.

2) 전문인 사역자로서의 준비

① 이제는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라(요 21:18).

후원자로서의 삶과 사역자로서의 삶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역자는 사역자가 되기 전부터 사역자로서의 삶을 익혀야 하며 이러한 훈련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

② 가능하면 국내 전문인 선교단체나 기관에 헌신하여(파트나 전임) 배우라.

이러한 훈련은 사역관계 형성에 유익하고 후원관계 형성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비전을 이루는데 필요한 유용한 통찰력과 안목, 경험을 익힐 수 있다. 또한 선교사역에 필요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울 수 있다.

③ 중보기도 그룹과 후원구조를 세우라.(3~5년 계획)

중보기도 그룹은 5~6명의 그룹을 5~6개 정도 만들면 좋으며 개인 후원자를 모으고 교회 후원구조를 형성한다.

④ 해외선교 경험을 자주하라.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을 가는 것이 좋으며, 이 훈련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거시적, 미시적 안목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⑤ 국내에서부터 선교지라고 생각하라.

선교는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가고자 하는 곳의 세계관, 성격, 기질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이해와 그들을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전도와 제자양육, 사역 배우기 등은 국내에서 익혀 놓아야 선교지에 나가서 제대로 할 수 있다.

*** 출처: 온누리신문**